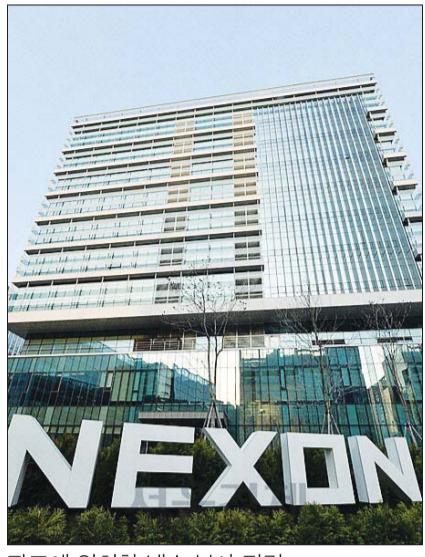


‘창작인가 도용인가’… 게임 저작권 새 기준 세울 판결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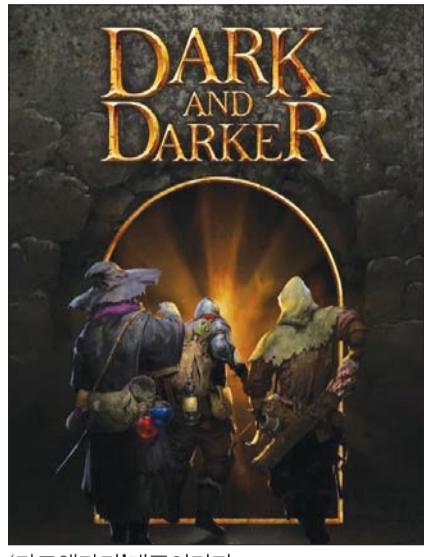
넥슨·아이언메이스, ‘3년간 공방’

넥슨, P3 프로젝트 자료 유출 주장
퇴사자 내부 자료 외부 유출 논란

아이언메이스, 순수 창작물 강조
창작 자유 제한 시 산업 발전 저해



판교에 위치한 넥슨 본사 전경. /넥슨



‘다크앤파커’ 대표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파커’를 놓고 넥슨과의 법적 분쟁이 팽팽한 가운데 국내외 게임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업계 주목도가 높다. 지난 3년간 법적공방을 이어간 만큼 내년 2월 13일 재판 선고기일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서 넥슨은 자사 신규 개발 본부에서 진행한 ‘P3’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최모씨가 소스코드, 데이터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파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봄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년간의 공방… 양측 주장 팽팽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이같은 법적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왔다. 공방의 주요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 영업비밀 부정사용, 고유의 아이디어 등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에 고소했다. 최씨가 넥슨에 재직할 당시 P3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다크앤파커를 개발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 수사대는 지난 9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소송한 최씨를 필두로 넥슨 출신 퇴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게임사다.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10개월만에 다크앤파커가 출시됐다. 이 과정에서 P3와의 유사성이 논란되면서 공방의 시작이 됐다.

공방의 중심에서 있는 최씨는 넥슨 재직 당시 P3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이유로 징계해고 처리된 바 있다.

넥슨은 공방 과정에서 크게는 다크앤파커에 담긴 탈출, 좁은 던전으로 내려가는 요소 등이 P3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씨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며, 장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개인서버에 자료를 올린 것 역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건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다크앤파커에 접목된 다양한 핵심 요소들이 P3에 담겨있다. 최씨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다. 회사 연구개발 당시 나온 소스기 때문이다. 두 게임은 장르가 같고 무단으로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크” 개발 과정에서도 ‘P3’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작품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게임산업 특수성 고려한 판결 나올 것”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 침해 등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판결이 나올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판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민 한앤율 변호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비록 기각됐지만,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해당될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 역시 “그간 판례를 생각해봤을 때, 게임 자체를 온전한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무단도용 등에 초점을 맞출 듯하다”고 전망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이 게임 시장 전반을 뒤흔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저작물침해, 부정 도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업계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으로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도 크다. 세세한 법적 판단이 오히려 독창적인 게임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게임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며 “기준에 있던 걸 변형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다. 기존 게임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면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어렵고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에이피알

K-뷰티테크 해외 공략

CES서 뷰티 디바이스 등 선봬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혁신적인 뷰티테크 기술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2년 연속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1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 전시장이 열릴 예정인 ‘CES 2025’에 참가해 ‘메디큐브’ 브랜드를 중심으로 에이지알(AGE-R) 뷰티 디바이스 및 뷰티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에 참가하는 에이피알은 베네시안 엑스포 전시장 내 ‘라이프스타일’관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등 차별화된 K-뷰티테크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이피알의 부스에는 ▲부스터 프로 ▲울트라 투 40.6 ▲하이 포커스 샷 ▲부스터 프로 미니 등 주력하고 있는 2세대 뷰티 디바이스와 더불어 병용 가능한 화장품 라인이 다수 진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스 방문객이 제품을 통해 ‘미래 뷰티테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에이피알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이번 CES 2025를 통해 미국 외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24년 1월 CES 첫 참가에서 에이피알은 7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을 진행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네트워킹과 신규 파트너십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휘종 기자 yhj@

‘리니지2M’ 中 공략 본격화

엔씨소프트, 텐센트게임즈와 협업 출시 시기 등 상세 정보 추후 공개

엔씨소프트가 MMORPG ‘리니지2M’의 중국 서비스를 텐센트게임즈와 샤오밍타이지가 연합으로 맡는다고 19일 밝혔다. 리니지2M은 지난 10월 25일 샤오밍타이지를 통해 중국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외자판호를 발급받았다. 현지 퍼블리싱은 텐센트게임즈와 샤오밍타이지가 연합으로 맡는다. 중국 서비스명은 ‘天堂2: 盟約(천당2: 맹약)’이다.

텐센트게임즈는 지난 18일 리니지2

M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중국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엔씨(NC)는 텐센트게임즈와 협업해 리니지2M 중국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게임 출시 시기 등 상세 정보는 추후 공개한다.

리니지2M의 원작인 PC MMORPG ‘리니지2’는 2004년 중국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텐센트게임즈는 2012년부터 리니지2의 중국 퍼블리셔를 맡아 서비스 중이다.

리니지2M 중국 서비스 관련 정보는 텐센트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삼양 흰동이 짱구’ 유기견 보호 나선다

삼양식품, 판매금액 일부 보호소 기부

삼양식품이 스낵브랜드 ‘삼양 흰동이 짱구’의 판매금액 일부를 강아지 보호소에 기부한다. 삼양식품은 동물자유연대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소정의 금액을 동물자유연대 강아지 보호소 온 독에 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식품이 기부하는 금액을 사료로 환산할 경우 매월 1000끼니 이상 제공 가능한 금액이다. 이번 캠페인은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기부와 함께 SNS



삼양 흰동이 짱구. /삼양식품

이벤트 ‘우리집 댕댕이 자랑대회’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플루언서 ‘태하’와 홀리데이 캠페인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 최대 35% 할인

영유아 일상복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가 아동 인플루언서 ‘태하’와 함께 연말 및 새해맞이를 기념하는 ‘홀리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태요미미’의 주인공 태하가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의 인기 상품을 착용한 화보도 공개 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개하는 행사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에 맞춰 아동을 위한 가을·겨울 인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태요미미’의 주인공 태하가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의 인기 상품을 착용한 화보도 공개 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홈쇼핑서 ‘하이뮨’ 사면 장민호 달력을”

일동후디스, 화보 사진 삽입 탁상 달력

일동후디스가 GS, CJ, 현대, NS 등 홈쇼핑 채널에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면역케어(하이뮨 면역케어)’ 구매 시 ‘2025 장민호 달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하이뮨 면역케어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고, 하이뮨 전 속 모델인 장민호와 다가오는 2025년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

일동후디스가 새롭게 선보인 ‘장민호 달력’은 매달 새로운 장민호의 화보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탁상 달력이다. /신원선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링클 립밤 3종’

입술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함유

동국제약은 입술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인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 3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이다. 또 동국제약이 독자 개발한 핵심 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주출물에 캐스터오일,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은 입술 항노화 효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은 실제로 해당 제품은 입술 노화 5대 고민인 주름, 탄력, 보습, 치밀도, 볼륨에 대한 4주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티에이징 효과를 입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국제약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색의 ‘플레인’, ‘코랄’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선보여진다. 이를 모두 다양한 피부 톤에 제한받지 않고 활용 가능하다. 발색까지 조절할 수 있어 민낯부터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연출을 돋는다. /이청하 기자 mlee236@